재일간행물과 해양서사*

-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을 중심으로 -

김옥지**
kimochi39@gmail.com

<목차>

1. 들어가며	4. 일상적 해양과 문학
2. 재일간행물과 서사적 해양	5. 맺음말
3.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양담론	

주제어: 해양성(being maritime), 재일 에스닉 잡지(Japanese-Korean ethnic magazines), 디아스포라(diaspora), 마이너리티(minority), 해양서사(marine resources)

1. 들어가며

일본 내의 마이너리티 그룹 재일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병과 연행으로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들의 도항에서 비롯되었다.¹⁾ 패전 후 해방을 맞았음에도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식민지배국 일본에 남아야만 했던 소수의 재일한인은 특수한 사회집단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창출해갔다.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 한국, 북한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한 재일한인은 소수자로서 현실적 상황과 국적 딜레마를 담고자 여러 유형의 간행물을 발행했다. 재일한인은 식민종주국에서 비롯된 마이너리티로서의 핍박과 차별, 모순 등 한국역사의 특정한 시대의 삶을 간행물에 다뤄 미디어 커뮤니티를 이어갔다. 한국과 일본의 자연환경에서 불가피했던 바다는 삶의 공간이었기에 재일한인의 일상 속 애환과 치열했던 생존의 해양서사로 재일간행물에 나타났다. 잡지에 실린 해양에 관한 사소한 기사, 정책 및 산업, 문학에 나타난 모티브 등을 서사의 텍스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재일간행물의 문학적 범주에 해양서사를

* 이 논문은 2020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0S1A5B5A1608214)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본고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 대해 ‘鮮人’과 ‘朝鮮人’으로 지칭하고 있는 한국국적과 조선국적, 일본국적을 가진 한민족을 ‘재일한인’으로 약칭해 표기한다. 또한 그들에 의해 간행된 잡지는 ‘재일잡지’로 지칭한다.

결합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의의를 둔다.

재일한인에 의한 최초의 일본어잡지『민주조선(民主朝鮮)』(통권33호)과 『조선평론(朝鮮評論)』(통권9호)은 패전 직후 일본의 혼란한 시기의 재일사회형성기에 간행되었다. 식민지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한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일본에 남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현실에 직면했다. 얼마되지 않아 한국전쟁의 발발은 예상치도 못하고 해방정국에 팽배했던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한인들의 정착과정이 있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재일사회의 시작점을 공론화하며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정치적 대립양상을 다루기 시작했던 간행물이었다. 재일한인 형성기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이데올로기 양상을 적나라하게 실었던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해양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의 서사를 게재함으로써 재일 에스닉 잡지의 문학적·문화적으로 상징성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 잡지의 발행시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이 팽배했던 만큼 재일사회의 문제점으로 증폭되어 이에 관한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간행물이라 할 수 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일본사회에서의 재일한인으로서의 의식과 민족적 정체성에 따른 내부적 결속을 단합하려는 취지를 담은 잡지였던 만큼 이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이한정은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을 통해 해방정국에 팽배했던 정치이념적인 대립과 민족 정체성 탐구의 일환으로 문학에 주력한 잡지로,²⁾ 이한창은 재일작가의 발표의 장으로서 일본문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 잡지로 기술했다.³⁾ 김환기는 한국전쟁으로 표상되는 조국의 혼란상을 과거 식민지배국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재일한인의 내면적 고뇌와 생존투쟁의 과정으로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했다.⁴⁾

지금까지 재일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생존투쟁, 정체성 등에 관한 연구 성과는 나타났으나 그들의 출발선상에서 바다는 불가피했던 요소였음에도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해양성 연구는 간과되었다. 나아가 재일간행물에 실린 식민지배국 마이너리티로서 형성되었던

2) 이한정(2018) 「『민주조선』과 ‘재일문학’의 전개」 『일본학』 39집, p.182

『민주조선』에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 ‘조선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조선 문화’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고 ‘민족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이 잡지에서 민족 정체성 탐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문학 활동을 통해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3) 이한창(2014) 「작품 발표의 장으로서의 『민주조선』 연구」 『일본어문학』 60집, p.388

『민주조선』에는 많은 진보적인 일본작가, 평론가 등 54인이나 되는 많은 일본인들의 글이 실렸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좌익성향의 작가들로서 해방 후 일본문단을 주도하던 이들의 도움으로 동포 작가들은 일본잡지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4) 김환기(2015) 「문예잡지『三千里』와 재일코리아의 문화 정체성」 『일본학보』 104집, p.137

『민주조선』에 이어 창간된 『조선평론』(1951년)과 『새로운 조선』(1954년)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한의 참여한 정치이념적인 대립양상을 특집, 대담, 비평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는다.

영역의 해양은 그들의 이동, 이산, 정착의 디아스포라 공간의 접점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해양서사는 어떻게 구사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재일한인 형성기에 비롯되어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재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간행물로서 해양적 요소는 어떻게 다뤘는지 주목한다. 요컨대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해양서사는 문예 항목뿐만 아니라 기사 전반을 나타난 해양 관련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재일 에스닉 잡지의 현재적·문학적 의의에 대해 고찰·분석한다.

2. 재일간행물과 서사적 해양

해방 이후에도 구식민지 지배국에 남아 소수자로서 소외·멸시·차별받았던 재일한인은 일상 속 경험과 척박한 터전이었던 해양을 에스닉 간행물에 서사화했다. 재일한인사회는 1910년 8월에 일본의 조선인입국금지가 해제되면서 현해탄을 건너 노동력이 풍부한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지역사의 피식민자로서 출발했던 재일한인은 사회적 편견과 배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치적 대립, 소수집단으로서의 소신을 표면·공론화하기 위해 미디어 발행이 불가피했다.

『민주조선』은 1946년 6월에 창간되어 1950년 7월까지 재일사회의 탈식민과 탈제국의 과정에 비중을 두며 현실적 ‘재일’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또한 과거 36년간 왜곡된 조선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바로잡고 조선인을 이해시키려는 취지가 있었다. 『민주조선』의 후계지 역할을 모색한 『조선평론』은 1951년 12월에서 1954년 8월에 이르기까지 재일사회의 생활현장에 집중해 <수기>, <르포타주>, <생활과 투쟁> 등의 문예항목을 마련해 에스닉 잡지로서의 명맥을 이었다.

양명심은 조선인의 전쟁과 식민지 체험에 의한 마이너리티 서사로 기술했으며,⁵⁾ 소명선은⁶⁾ 식민지시대에 일본군에 징병당해 사망한 가족, 이카이노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양상, 정치와

5) 양명심(2018) 「재일작가의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연구」 『일본문화학보』 77집, p.39
 식민지기와 전쟁 기간 동안 재일조선인은 하층 노동을 중심으로 분포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은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중략) 여기서 ‘국가’ ‘제국주의’ ‘식민지’에 밀착되어왔던 재일서사 이외에도 그 안에 다른 층위의 개별적인 ‘재일조선인의 삶’이 퇴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소명선(2015) 「마이너리티문학 속의 마이너리티이미지」 『일어일문학』 54집, p.290
 식민지시대에 일본군에 징병당해 사망한 가족, 한국전쟁, 남북 분단된 조국의 현실과 이카이노사회의 이데올로기 대립양상, 한국의 정권변동과 그 여파로 조국 방문의 꿈이 좌절되는 모습들이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 듯한 소박한 여성들의 삶의 애환 속에 묻어나오고 있다.

는 무관한 삶을 사는 듯한 소박한 여성들의 삶의 애환에 주목했다. 재일사회의 식민지를 체험했던 마이너리티 삶과 이카이노사회의 애환을 겪었던 그들의 출발 선상의 해양은 간과되었다.

『민주조선』에는 재일사회의 형성과정의 기초자료로서 조선인 도항의 역사를 나타냈다. 조선인의 도항이 1910년부터 본격화되면서 현저하게 급증했던 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15년에 일본이 노동력시장으로 돈벌이를 선전, 1918년에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로 토지와 자본을 빼앗긴 조선인들이 대거 이동해 노동자 과잉으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노동시장의 공황상태에 의해 일본은 조선인을 저지하기 위해 ‘도항증명서’를 실시했으나 조선인의 밀항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1932년 이후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선인은 강제징용과 연행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남태평양 열도로 도항했던 역사를 기초로 재일사회가 형성되었다.⁷⁾ 한인들의 밀항문제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일본사회의 문제로 야기될 만큼 급증했으며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을 강행했던 그들의 현실은 참혹했다. 밀항자는 두말 할 나위도 없으며 대부분의 재일한인은 피식민자로서 저임금의 하위조직의 노동자로 조악하고 혹독한 노동현장에서 노예에 가까운 행태로 살아가야 했다. 한인의 노동력은 도심보다 외곽의 소규모 조선소와 잠수함 건조공장, 항만건설 등 해안가에 조성된 생산 공장으로 몰리면서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조선평론』의 <르포르타주>에는 다나가와(多奈川)의 조선인노동자들 모여 살던 마을의 비참한 실태를 다뤘다. 오사카만의 잠수함건조공장과 군수품보급시설의 확충으로 보급함·피항지 등 항만건설에 강제 징용된 한인 노동자의 탄압과 총살사건을 폭로했다. 수백 명의 일본경관과 수십 대의 트럭이 동원된 탄압부대의 습격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마을을 폐멸시켰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⁸⁾ 나이가 재일사회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 『민주조선』에는 지역·직업분류에 노동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직종별 문제를 지적, 일본의 경제위기에 조선인은 퇴출되거나 조악한 일자리의 실태를 지적했다.⁹⁾ 게다가 일본금융정책의 압박으로 해운업계, 공업, 수산업, 잡화상 등의 도산으로 실업자 수천만 발생과 각 기업의 파산행태를 다뤘다.¹⁰⁾ 『조선평론』에는 한국전쟁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조선인강제송환, 강제격리문제로서 민족적 배외주의 정책을 강행했다. 한인중소기업은 일본의 금융규제와 중과세 부과, 수출 판매처 문제로 일본·미국 산업의 하청공장화 실태를 보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청

7) 林光澈(1950)「渡航史」『民主朝鮮』7호, p.37

8) 白佑勝(1952)「多奈川事件を解剖する」『朝鮮評論』3月號, pp.4-9

9) 尾形昭二(1948)「朝鮮人の地位について」『民主朝鮮』8月號, pp.2-3

10) 風早八十二(1946)「民主主義革命と朝鮮」『民主朝鮮』12月號, pp.4-9

의 방위체제를 내걸어 군수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오사카만 일대의 한인 가족노동 중심의 영세 기업은 폐업과 도산이 이어졌다.¹¹⁾ 또한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고전·현대무용가들을 초빙해 후계자양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동경과 오사카를 비롯한 각지의 공연을 지원하면서도 표현이나 활동에 제약을 뒀으며 공연중지 혹은 유치장에 감금하기도 했다.¹²⁾

재일사회는 경제불황으로 실직자가 넘쳐나는 마이너리티로 표상화되었고 재일한인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생활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조직적인 문제지적과 저항의식을 표명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는 재일한인의 집성지였던 오사카로의 이주과정에 제주도·부산·청진항·시모노세키항·니카타항으로 이동했던 현해탄 중심의 서사가 현저했으므로 재일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념대립이 내재되어 있었다. 재일사회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차별과 마주만 해양의 일상에서 다중적인 이해에 얽혀져 마이너리티 의식과 문제점이 유동하고 있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마이너리티 일상에서 소수자의 소신을 밝히는 문예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정치·사회·국제적 상황을 주시하며 모색방안을 담론으로 제시하는 등 에스닉 간행물로서 자리매김했다.

3. 한인 디아스포라와 해양담론

근대식민역사의 강제연행으로 탈경계의 해양을 통한 초국가적 이동을 경험했던 재일한인은 일본을 비롯해 여러 지역으로 정착해갔다. 일본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형성된 한인사회를 디아스포라적 범주라 할 수 있다.

문재원·박수경은 재일사회의 로컬리티를 형성하는데 기억과 재현에 대해 언급했다.¹³⁾

이러한 로컬리티를 형성하는데 기억과 재현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때 기억은 과거의 경험적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회상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진 주체들의 끊임없는 기억 투쟁을 통해 선별된 것이다. 이렇게 선별된 기억 장치들은 특정 장소의 재현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억과 재현을 통해 특정 장소는 ‘말해지고 드러나게’ 된다.

11) 李贊義(1952)「朝鮮中小企業の實態-日本經濟と平和産業の問題-日本經濟와 平和産業の問題」『朝鮮評論』3月號, pp.36-42
 12) 鎌田美彌子(1953)「在日民族舞踊とモダニズム」『朝鮮評論』11月號, p.48
 13) 문재원·박수경(2007)「‘이카이노(猪飼野)’의 재현을 통해 본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로컬리티 인문학』5, p.125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공간에 로컬리티의 기억은 과거의 경험적 사건을 무차별적으로 회상하는 특정 장소의 재현을 통해 드러났다고 한다. 재일한인이 식민지 역사에서 강제적 이산에 따른 과거의 경험과 특정 장소에 해양적 요소가 간과되었다고 본다. 한인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주과정에 차별과 배제, 소외의 경험과 공간으로 해양의 서사는 폭넓게 조명되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한인디아스포라로서의 마이너리티 인식은 차츰 조국지향의 상실과 현실적 생존과 직결된 해양으로 그 궤를 같이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민주조선』에는 관행적으로 배제당했던 한인디아스라는 종전 이후였음에도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시달리는 사할린의 생활사적인 일면을 살펴본다.¹⁴⁾

사할린과 치시마열도는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 지배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 청어통조림공장과 어업 용구금속 공장의 일본인노동자는 소련인에 비해 높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혜택, 탁아소, 유치원,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았고 이에 반해 조선인노동자에게는 초과노동에 임금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은 상품을 구매하면 일본인과 소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와 토지특별세, 농기구과세 등을 부과하기도 했음을 지적했다.

한인디아스포라는 주류에서 배제된 경계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정착에 따른 제도적·사회적 과제에 관한 담론은 주요했다. 『조선평론』에는 한·미·일 회담에서 재일한인 대부분이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에 강제 징발되었기 때문에 거주 자유를 유념하되 밀항자문제, 선박, 어업, 통상 등 여러 문제가 주제로 다뤄짐으로써 한인디아스포라의 마이너리티 삶은 생생하게 전했다.¹⁵⁾ 『민주조선』에는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교류와 더불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태평양열도에 있는 일본인(조선인) 귀환문제도 끊임없이 교섭을 시도해야한다고 거론했다.¹⁶⁾ 점차적으로 한인디아스포라 아이덴티티는 저항의식을 벗어나 경계를 초월해 해양중심으로 공생하는 다국적·다문화를 상호간 공동체로 공유했다. 나아가 해양인식 또한 정치·경제를 관통하는 국제적·사회적 이슈로 쟁점화되었다.

『조선평론』에 미국은 태평양연안선이 아시아 본토에서 가까운 일본에 군수공업과 군사시설을 설치해 전투지휘관과 예비군을 군사기지로 확충했음을 실었다. 미국의 재군비 확충은 소련이 동맹국과 중국의 침략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협의안으로 내걸었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을 해방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어 군사력, 공업자원, 통신, 항만운수

14) ソ連記者ウラジミーノフ(1946)「樺太の日本人と朝鮮人達」『民主朝鮮』8-9月號, p.47

15) 高成浩(1952)「日韓會談朝鮮人強制秋芳」『朝鮮評論』2月號, pp.4-15

16) 中保興作·外10名(1946)「日本のジャーナリストの語る—解放朝鮮の現状とその展望」『民主朝鮮』8-9月號, pp.48-62

교통망을 파괴하는 이른바 총력전을 펼쳤다.¹⁷⁾ 해양 근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갈등 양상은 재일간행물의 해양담론을 통해 경제적·정치적인 문제를 전망했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해양 근간의 시책은 각국의 생활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해방 후에는 재일사회 내부의 민족적 문제와 어업과 어구공장 등 생계에 반영될 정보를 게재해 재일잡지로서 역량을 확대해갔다.

『민주조선』에는 조선·일본·중국은 내수문제의 한계로 무역을 재개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서구 유럽을 관망한 해운산업이 미·소 정치적 대립으로 국제정세에 관한 대외적인 조건과 국내의 주체적인 조건 등을 피력해, 해양중심의 무역과 연안 해운업에 직면한 현안을 게재했다.¹⁸⁾ 나아가 중국·일본은 해양의 경제성에 대한 관점으로 정치지배력을 강화, 한편 러시아와 페르시아 분할, 영국패권에 의한 대륙진출로 팔레스타인탈취 등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구열강의 정치·군사·경제 인식에 따른 해양의 탈경제 충돌을 다뤘다.¹⁹⁾ 『조선평론』에는 이란·이라크 분쟁, 소련의 개입, 페르시아만 위기감 `고조로 증권가에 미치는 해양의 경제 인식과²⁰⁾ 동남아시아정세에 군사·지원적 손실을 우려한 유럽의 태평양중심의 군사력강화와 파나마운하운영·항만무역·해양산업에 기술하며 경계를 초월한 네트워크를 다뤘다.²¹⁾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른 재일한인의 해양근간의 초국가적 이동과 정착에는 식민지 종식 후에도 디아스포라적 상황과 마이너리티적 정체성은 심화되었다. 재일간행물을 통해 재일한인은 해양의 정치·경제적 관점과 아울러 디아스포라로서의 탈식민주의와 현실적 과제를 담론화했다. 재일한인의 현실적 과제는 실생활의 문제로서 자신들의 간행물에 문학적 요소로 녹여내 표출하기도 했다.

4. 일상적 해양과 문학

재일한인은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생존의 해양을 리얼하게 담아 문학적으로 서사화했다. 재일간행물은 에스닉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던 커뮤니티로써 재일한인과 아울러 재외한인의 삶을 재현해 주는 장치였다. 주지하다시피 도항에서 비롯된 재일사회는 자신들의 일상 속 마이너리티 문제의식과 한인디아스포라의 관점이 문예항목의 詩·소설·수

17) 小山弘健(1952)「再軍備·朝鮮問題·アジア太平洋平和會義」『朝鮮評論』5月號, p.7

18) 劉明岩·外12名(1946)「東洋民主主義革命の進展」『民主朝鮮』8月號, pp.4-17

19) 岩村三千夫(1949)「中國革命の進展と日本」『民主朝鮮』5月號, pp.36-44

20) 編輯委員(1952)「頭痛のインドシナ」『朝鮮評論』2月號, p.27

21) 編輯委員(1951)「ソ同盟の新しいうごき」『朝鮮評論』9月號, p.16

필 등으로 표출되었다.

하상일은 해방 이후 재일잡지의 詩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²⁾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은 허남기, 남시우, 강순, 김시중 등으로부터 김윤, 정영훈, 박일동, 김학렬, 정화수 등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중략) 특히 그동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간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조총련계의 詩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재일잡지의 詩문학에는 한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詩를 통해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실생활의 생업에 미쳤던 해양적 요소 또한 주요했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어 해양의 詩문학 활동 또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조선』의 정지용의 詩「해협」은 재일사회의 출발점을 담은 장르로서 현해탄을 건너가는 배 위에서 있는 청년의 어두운 심경을 담았다.²³⁾

정오가 가까운 해협은/ 백색 흔적이 정확한 원주/ 마터스의 끝의 적기는/ 하늘보다 아름다웠다/ 얼룩말과 같이 물개를 닮은 듯한 아름다운 섬들/ 하지만 살짝 흔들린다/ 그러나 해협이 굽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구 위를 기어가는 것인가/ 이렇게도 유쾌한 일이었던가/ 쓸쓸한 곳에서 기적 소리는 무섭게 울렸다/ 당나귀같이 슬프다/ 해협의 7일의 햇살은 달빛보다도 선선했다/ 연통 옆 사다리에 나란히 제주도 사람들이 즐겁다/ 스물한 살의 첫 항해에서/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

「해협」은 스무 살에 첫 항해를 경험하는 청년은 설레임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담배를 피우는 심경을 다뤘는데 이는 재일한인이 현해탄을 건넌던 모습이 서사화된 것이다. 배를 타고 있던 청년의 심경이 서글프고 두려움으로 묘사되었던 것은 자신의 행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이어지는 정지용의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⁴⁾ 「지도」의 치시마섬의 아름답고 고요한 풍경은 황홀한 해학인가에 대조되는 비유로 일본부대의 교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당시 폭격 소리를 타이핑 소리에 비유하였다. 치시마섬은 사할린州的 열도로 일본부대가 주둔한 곳으로 배의 기적소리도 두렵고 슬펐던 청년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허남기의 「태백산맥」은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강원도산맥과 부산 앞바다를 거쳐 한바다로 이어진 표현은 재일한인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다뤘다.²⁵⁾ 또한 그들의 척박한 삶은 허남기의 「갯바위

22) 하상일(2006)「재일 한인 잡지 소개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한국문학논총』제42집, p.403

23) 鄭芝溶·韓綴(譯)(1946)「海峽」『民主朝鮮』5月號, pp.50-51

24) 鄭芝溶·韓綴(譯)(1946)「地圖」『民主朝鮮』5月號, p.51

에서」에 묘사되었다. 한바다의 이름도 없는 작은 바위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 밀어붙이는 파도에 개의치 않고 버터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²⁶⁾ 이는 온갖 탄압에도 버터내는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 삶을 형상화한 명맥으로 『조선평론』의 詩문학「부지화」에는 어둠의 한바다에 흐릿한 불빛을 따라 작은 섬들 사이로 지나가는 돛단배로 그려졌다.²⁷⁾ 또한 「가령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에는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실상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의 적나라한 묘사도 있었다.²⁸⁾

고향에 이별을 고히고/ 별의별 것을 다 짊어지고/ 도항증명서/ 개의 패찰을 받아/ 시모노세키로/
또는 요코하마로/ 그 부두를 건너/ 연초가루와/ 캄캄한 지옥 같은 탄광에/ 있는 것은 채찍소리 가차없
이/ 그 탄광의 숙소에 채워져/ 다만 조선인이기에 (중략) 밭을 갈던 농부까지/ 계락을 꾸미기 위해/
어떻게든 부정한 조선인을 체포하고/ 어떻게 하면 불온한 북조선계 대상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가령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에는 재일한인이 일본으로 건널 수 있었던 도항증명서를 개가 차고 다니는 패찰로 빗대어 지옥 같은 타국살이라 표현했으며, 남쪽과 북쪽 출신을 막론하고 조선인은 불온한 대상으로 비난을 일삼았던 현실을 다뤘다. 한편 「거제도」에 최남단의 거제도는 조국의 일부가 아니라며 자신들을 가둔 어두운 도살장 철책으로 묘사했다. ²⁹⁾

그것은 우리들 조국의 일부는 아닙니다/ 조국 안의 극지/ 독수리까지 무리짓는 암흑의 섬입니다/
섬은 세로로 철책으로/ 이어지는 형상으로/ 몇 겹이나 차단된 정원이 있고, 방이 있고/ 한 사람씩
나눠서/ 사람을 구획 지은 / 어둡고 어두운 도살장인 것입니다. (중략) 「출입금지」의 뜻말은 섬사랍
들로서/ 출구 없는 미로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거제도」에는 섬 입구에 ‘출입금지’의 뜻말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섬사람들조차도 출구가 막혀 미로로 쫓겨 다녔다고 실려 있다. 여기에 사람을 가둔 철책은 북쪽 출신의 군인이나 일반인들의 포로수용소를 의미한다. 섬 입구의 뜻말에 새겨진 ‘출입금지’로 인해 섬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본디 거주민들의 출입을 막는데 주력했다기 보다는 전쟁포로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으며 북한 공비들에게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도살장의 거제도가 조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동포들의 죽음의 아우성이 울렸던 암흑의 거제도는 이데올로기의

25) 許南麒(1948)「太白山脈」『民主朝鮮』11月號, pp.34-39
26) 許南麒(1946)「磯にて」『民主朝鮮』7月號, pp.66-67
27) 小野十三郎(1952)「不知火」『朝鮮評論』3月號, pp.62-63
28) 吳林俊(1952)「たとえ嵐あはすさぶとも」『朝鮮評論』5月號, pp.62-63
29) 金時鐘(1952)「巨濟島」『朝鮮評論』3月號, pp.64-65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설작품에서도 해양서사는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적 탄압과 멸시를 표출한 공간·의미구현의 문학적 층위로 발현되었다. 『민주조선』의 「에다가와이쵸메」는 동경만 앞에 전쟁폐기물의 매립지였던 작은 섬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한인 노동자를 다뤘다.³⁰⁾ 대부분 조선소와 어업에 종사했던 한인들의 주택뿐만 아니라 거리, 학교 등 악취가 진동하는 환경적인 요소보다 그들을 향한 경멸감과 혐오감, 범죄자 수준의 사회적 잣대를 그렸다. 「탈피」에도 어촌마을 출신의 주인공은 대학을 나왔지만 여러 취업소개소에 의뢰했지만 재일한인으로서 괴리를 느끼며 배회하다가 비린내 나는 항구마을, 폐선에 가까운 어선, 조개껍질에 영긴 그물이 널려있는 강변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을 다뤘다.³¹⁾ 『조선평론』의 「나의 긍지를 지킨다」에는 폭격으로 하룻밤에 폐멸되었던 항구도시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가와 술집 중심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거리가 형성되었다. 외국선박에 의한 여러 인종들의 모습과 술, 담배 등은 한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항구도시에 문화단속반이 골머리를 앓았던 내용을 다뤘다.³²⁾ 전쟁폐기물 매립지의 작은 섬이나 폭격의 잔해 속의 항구마을에 터전을 마련했던 재일한인은 어업, 이에 관련된 공장, 술집, 잡화상 등을 운영하면서 근근이 살아야 했다. 그들에겐 쓰레기 더미의 열악한 환경보다 자신들을 향한 혐오감,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적 경멸감이었음을 소설작품에 담아냈다.

그리고 수필문학은 지식인이나 작가 이외에도 일반인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로서 재일간행물에 다수 게재되었다. 『민주조선』의 「위기에 선 재일조선인의 생활」에는 도항민, 즉 유민으로서의 재일한인은 식민지인 특유의 노예적 저임금, 노동력 착취, 공장과 상점의 파산에 따른 노동인민의 생활난, 농어촌의 몰락으로 완전한 실업인구화로 전락된 양상을 담았다.³³⁾ 「대마도 사람들」은 바다의 거친 파도에 목숨을 걸고 조업해야 했던 재일한인의 극심한 빈곤과 고통을 겪었던 피폐한 마이너리티의 전형을 그렸다.³⁴⁾ 소설에는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위해 도항했던 재일한인은 식민지인 특유의 노예적 저임금과 거친 바다에 죽음을 무릅쓴 조업에도 빈곤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경제 구조의 불합리한 여건에도 버텼던 공장과 상점의 파산으로 실업자로 전락한 해양서사가 그려졌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는 재일한인의 식민지적 일상적인 차별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다국적 디아스포라로서의 존재 방식 또한 주류에서 배제된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 재일 에스닉

30) 李殷直(1948)「枝川町一丁目」『民主朝鮮』8月號, pp.75-79

31) 李殷直(1946)「脫皮」『民主朝鮮』12月號, pp.61-62

32) 李殷直(1952)「わが誇りを守らん」『朝鮮評論』3月號, pp.100-101

33) 李贊義(1950)「危機に立つ在日朝鮮人の生活」『民主朝鮮』7月號, pp.48-49

34) 元容德(1949)「對馬島周邊の人々」『民主朝鮮』7月號, pp.68-69

간행물로서 계보를 확고히 하며 출발했던 『민주조선』은 종합문예잡지로서 문예항목을 詩·소설·희곡·영화평론 등 다각적으로 게재했던 반면에 『조선평론』은 수기·르포르타주 등의 문예란을 마련해 사회고발과 시사적 요소를 다뤘는데 여기에 해양에 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5. 맺음말

재일사회 형성기에 간행된 에스닉 간행물은 그들의 역사·문화·문학적 궤적을 공고히 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는 일제의 강제징용과 연행에 의한 도항에서 비롯된 재일한인은 점차 일본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건너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노동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 실업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일으켜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항증명서’를 발급했다. 재일한인은 60%가 노동자였으며 그들은 도심보다는 주로 연안일대의 형성된 어구제조업, 함선공장, 어업, 항만건설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야말로 식민지 노예 수준의 임금과 노동력착취의 피폐했던 생활을 버텨갔다. 고단한 육체노동과 황량한 일대에서 재일한인은 간행물에 갖은 노력 끝에 획득했던 ‘도항증명서’를 개가 차는 패찰로 묘사하기도 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발행 시기와 맞물려 광복을 맞은 직후와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재일사회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식민주의 잔재의식,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 관련된 해양의 복합적인 요소가 게재된 재일 에스닉 간행물이었다. 광복 이후에 귀국을 강행했던 한인들도 있었지만 식민지 지배국에 남아야 했던 재일사회는 피식민주의 계층으로서의 마이너리티 인식과 척박한 일상을 재일간행물을 통해 조선인강제추방과 출입국관리법 등 일본의 정치 현안에 대해 공론화했다. 재일한인의 해양인식은 한·일간의 어업권문제와 국제해양법수용의 마찰로 경제관점의 문제의식을 재일간행물에 담론화했다. 재일간행물의 해양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해 연해주·만주·대마도해협·일본열도·동해·태평양해상의 루트로 해양진출과 군사적 요새임을 피력했다. 이를테면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해양담론은 주류에서 배제된 경제적 존재였던 한인디아스포라의 제도적·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단서가 됨으로써 서사적 전략으로 자리매김 했다.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일본과 여러 국가로 이동·정착한 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조국지향의 상실과 다국적·다문화에서 심화되는 마이너리티의식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인디아스포라의 마이너리티 상황은 문예항목의 詩·소설·수필 등으로 문학적으로 재현되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은 詩문학을 통해 치시마섬으로 강제징용된 청년의 두려운 심경

과 일본부대의 교전이 벌어졌던 상황을 형상화했다.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애환을 바탕으로 구사된 소설에는 전쟁폐기물의 매립지에 폭격의 잔해 속에 살아가는 재일한인은 쓰레기더미의 환경보다는 범죄자, 짐승으로 손가락질 받는 서러움에 몸서리쳤던 해양서사로 구사되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을 에스닉 커뮤니티로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며 재일한인의 의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담았던 수필문학은 다수 게재되었다. 詩문학에서는 남쪽과 북쪽 출신을 막론하고 조선인은 불온한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 갇힌 북쪽 출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두운 철책의 도살장으로 내몰았던 그곳은 조국이 아니라고 했다. 재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내부 분란과 문제의식이 문학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재일간행물에는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소수자의식과 디아스포라로서의 비주류·경계적으로 존재했던 일상을 해양적 요소는 불가피했다.

본고에서는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詩·소설·수필·담론 등 문예항목과 아울러 기사 전반에 관한 해양서사를 모색함으로써 그동안 선행되지 않았던 재일문학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재일 에스닉 간행물의 해양서사 분석은 재일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한정(2018)「『민주조선』과 ‘재일문학’의 전개」『일본학』39집, p.182
 이한창(2014)「작품 발표의 장으로서의 『민주조선』연구」『일본어문학』60집, p.388
 김환기(2015)「문예잡지『三千里』와 재일코리안의 문화 정체성」『일본학보』104집, p.137
 양명심(2018)「재일작가의 이중의 마이너리티 서사연구」『일본문화학보』77집, p.39
 소명선(2015)「마이너리티문학 속의 마이너리티이미지」『일어일문학』54집, p.290
 문재원·박수경(2007)「‘이카이노(猪飼野)’의 재현을 통해 본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로컬리티 인문학』5, p.125
 하상일(2006)「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403」『한국문학논총』제42집, p.403

<텍스트>

編輯委員(1946-1950)『民主朝鮮』

編輯委員(1951-1954)『朝鮮評論』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5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재일간행물과 해양서사

-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을 중심으로 -

김옥지

일본 내의 마이너리티 그룹 재일한인사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병과 연행으로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들의 도항에서 비롯되었다. 패전 후 해방을 맞았음에도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식민지배국 일본에 남아 살았던 재일한인은 소규모 특수한 사회집단으로 그들의 문화를 창출해갔다.

최초의 재일간행물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에는 구식민지 종주국에 남아 소수자로서 소외·멸시·차별받았던 재일한인의 마이너리티 경험과 척박한 터전이었던 해양을 서사화했다. 근대식민역사의 강제연행으로 탈경계의 해양을 통한 조국가적 이동을 경험했던 재일한인은 일본을 비롯해 여러 지역으로 정착하며 특유의 한인디아스포라사회 형성되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한인디아스포라로서의 마이너리티 인식은 차츰 조국지향의 상실과 현실적 생존과 직결된 해양으로 그 궤를 같이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재일사회의 일상 속 마이너리티 문제의식과 한인디아스포라의 관점을 문학적으로 재현된 재일간행물은 에스닉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던 커뮤니티로써 재일한인과 아울러 재외한인의 삶을 재현해 주는 장치였다. 도항에서 비롯되었던 재일한인의 해양서사는 재일간행물의 문예항목의 시·소설·수필 등으로 표출했다.

『민주조선』과 『조선평론』의 詩·소설·수필·담론 등 문예항목과 아울러 기사 전반에 관한 해양서사를 모색함으로써 재일문학의 의미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재일 에스닉 간행물의 해양서사 분석은 재일문학의 현재적 의의를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Marine Resources in Japanese Magazines Published

- Focusing on Democratic Joseon and Chosun Criticism -

Kim, Ok-Ji

The minority group in Japan,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originated from the flight of colonial Koreans who were taken by forced conscription and arres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fter the defeat, the Koreans in Japan, who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even though they were liberated, and remained in colonial Japan, created their own culture as a small special social group.

In the first Japanese publications Democratic Joseon and Chosun Criticism, the narrative of the minority experience of Koreans in Japan and the barren base of the sea, which remained in an old colonial country, was marginalized, despised, and discriminated against. Koreans in Japan, who experienced transnational movement through the sea beyond borders due to the forced enforcement of the modern colonial history, settled in Japan and other regions, forming a unique Korean Indian spora society. The perception of minority as a Korean-Indiaspora in Democratic Joseon and Chosun Criticism gradually produced a discourse in line with the ocean directly connected to the loss of motherland orientation and realistic survival. A literary representation of the consciousness of minority issues in the daily life of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viewpoint of the Korean Indian spora, the Japanese publications were a community that strongly showed ethnic character, and were a device that reproduced the lives of Koreans in Japan as well as Koreans overseas. The maritime narrative of Koreans in Japan that originated in the port was expressed through poems, novels, and essays in literary items in daily publications.